



작품명 : 가을풍경 / 김형자 작가

동탄2동 소식지 기자단 모집

■ 대상 : 청소년/일반 ■ 인원 : 총원시까지 ■ 문의 : 031-5189-4756

“도전은 아름답다!”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동탄2동 주민자치계획단



장소와 길거리투표, 10월 29일 열리는 '탄요 축제' 때 사전투표를 한다. 축제를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수렴한 의견은 정기 주민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결정할 것이다. 주민총회 때 결정된 의견은 2023년도 실행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개인의 의견이 비로소 지역의 의제가 되는 매우 뜻깊은 회의였다.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는 '장터'를 시민들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동탄2동 자치 계획 단원들은 다양한 문제점을 가시화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까지의 전 과정에 앞장서고 있다. 누구나 자치계획단이 될 수 있고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이 되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생활밀착형 행정'을 하는 동탄2동의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윤보현 기자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동탄2동 주민자치계획단이 7월 9일 오전 9시 30분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3층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출범의 뜻을 힘차게 올렸다.

동탄2동 자치계획단(단장:오진승/단원 63명)은 마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주민과 더불어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 선언문을 낭독하고 발대식을 가졌다. 동탄2동 자치계획단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과 '플뿌리 자치의 활성화'를 슬로건으로 결성됐다.

선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나, 우리는 이웃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주민자치계획 단원들은 동탄2동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현안을 찾고 특성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을 대신하여 마을 의제를 찾아가는 공론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치계획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우리 지역의 필요 사안과 불편 사안을 찾기 위해 많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개인이 아닌 우리의 의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치계획단은 기획&운영 분과, 교육 & 프로그램분과, 청소년&홍보 분과, 문화&체육 분과, 나눔&복지 분과, 공동체&환경 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매주 1회 정기 모임을 하고 마을의 문제점을 공유하며 해결책을 찾는다. 아울러 마을의 발전과 복지의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동탄2동 자치계획단은 매주 한 번씩 6회의 모임을 하고 활동을 했다.

1회차 모임은 7월 9일(토) 09시 30분, 발대식에 이어 6개 분과를 구성했다. 이어서 '분과별로' 주민자치 계획'을 수립했다.

2회차 모임은 7월 23일(토) 09시 30분, 마을알기 동네 한바퀴 로 자치 계획 단원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장단점을 찾아 나섰다. 장점은 유지 발전시키며, 단점과 문제점은 시정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단원들은 '동네 한바퀴'를 돌고, 실행 결과를

비교 및 분석 정리하는 시간까지 마무리하고서야 일정을 마쳤다.

3회차 모임은 7월 29일(금) 18시, 동탄 2동의 비전을 수립하였다.

- 우리 동 주민자치회의 미션과 비전 수립
- 미션: 자치회의 활동이나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 비전: 미션이 현실에서 실현된 상황이나 형태
-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 아이부터 어른까지 서로를 배려하기
- 장애인과 노약자의 보행환경증진과 범죄로부터의 안전
- *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고 싶은 동네'

4회차 모임은 8월 9일(화) 19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분류하고자 하였다. 평소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부여함으로써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목록화하고 마을이 가진 자원의 현황을 발굴해보는 시간이었다.

5회차 모임은 8월 17일(수) 18시, '주민참여 100인 토론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지금까지 모여서 수집한 마을 정보와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 논의를 했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들은 어떤 변화를 원하며, 이 과정에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단원들은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치계획단의 저력이 보이는 시간이었다.

6회차 모임은 8월 23일(화) 18시에 진행되었으며 의제들을 다시 한번 분류하고 2023년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모인 의제는 동탄2동 여러



▲ 4차 모임 : 마을 의제 및 발굴 토의를 하는 나눔&복지 단원들



▲ 4차 모임 : 마을 별 의제 발표 장면

‘주변 환경을 내 몸과 같이’, 예그리나

2022년 4월,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2022 화성시 마을 만들기 주민 제안 공모사업」 공고가 나왔다. 예그리나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화성시 마을자치센터에 제출했다. 예그리나는 순우리말로 '서로 좋아하는 사이' 라는 뜻이다. 구성원은 동탄 2동 노작마을, 용사마을, 탄요마을, 환경을 중시하는 주민으로 이뤄져 있다.

‘주변 환경을 내 몸과 같이’ 사업명은 내 몸같이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이다. 환경개선을 위한 재활용과 쓰레기 등을 분리배출하고 탄소 배출량과 분리수거 시간 등을 잘 지켜 깨끗한 거리 조성, 깨끗한 환경을 내 몸과 같이 조성하자는 것이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 지키고 실천하기 위해 전문 강사의 교육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긴장감도는 발표일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실천 방법 등을 발표하러 봉담읍 화성시 마을자치센터를 방문했다. 참가한 팀들은 발표와 질의응답,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주제의 질문에 맞게 연습도 하였고 지식도 넓혔다. 발표 차례가 오기 전에 그 긴장감과 떨림이 아직도 생생하다. 꼭 선정되어 동탄 2동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싶었다.

10일 후에 주민 제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오랜만에 느끼는 떨림과 기쁨이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와 함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동탄 2동은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거주자가 많다.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재활용 분리수거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분리배출이 대체로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노작마을, 용사마을, 솔빛나루 상가 등은 아파트와 다르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과 참여 의식이 조금 원활하지 않았다.

환경과 기후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끝이 없으며 지속해서 실천해야 한다. 환경과 기후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서로 간에 미루지 말고 나부터 실천하자는 마음으로 차근차근해보자. 이 사업은 다른 주민들이 스스로 동참하도록 만들어보고자 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기후환경에 앞장서고, 분리배출과 수거를 잘해 쾌적한 거리로 타 동네에 모범이 되는 으뜸가는 명품 동네가 되도록 해야겠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에는 분리배출의 방법 등을 잘 물었지만, 이번 교육 프로그램과 만들기 체험과 캠페인 활동 등을 계기로 나 자신부터 라는 마음으로 분리배출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탄 2동 주민센터 2층과 3층의 강의실에서 전문 강사님을 초빙하여 마을주민들을 교육하고 워크숍을 진행했다. 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일까? 보드나 캠페인 활동을 준비하는 강의실이 열정과 열기로 가득 찼다.



환경캠페인 활동을 위해 워크숍과 교육에서 제로 웨이스트 체험 활동, 분리수거 안내 보드, 분리수거함(충전 선함, 폐건전지 함, 색연필, 말린 커피 찌꺼기 함, 폐형광등 수거함 등등) 등을 만들었다. 우리가 꿈꾸는 마을을 만들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쓰레기 분리배출 시간과 날짜를 잘 지켜달라고 하는 전단지 와 현수막을 만들고 홍보 등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시행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거리 홍보 등을 꾸준히 실천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동탄 2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했다.

전단지를 돌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배출날짜와 시간을 잘 지켜 쓰레기를 내놓는다면 거리가 깨끗할 텐데 안타까웠다.

2022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 선정사업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예그리나"와 함께 실천해 주세요!

일단 하나, 재활용 사용하기

일단 둘, 재활용이 사용되기

일단 셋, 양어구 사용하기

쾌적한 노작마을을 위해
금요일~일요일 저녁9시까지
정대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안돼요
낮에도 정대 안돼요

주소	일단, 재활용	음식물
노작마을	수거일: 월~금 배출일: 일~목	수거일: 월~금 배출일: 일~목
탄요동 111~129	배출시간: 화요일~내일 수거시간: 화요일~내일	배출시간: 화요일~내일

2022년 마을만들기 주민제안공모 선정사업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위해 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예그리나"와 함께 실천해 주세요!

일단 하나, 재활용 사용하기

일단 둘, 재활용이 사용되기

일단 셋, 양어구 사용하기

쾌적한 용사마을을 위해
금요일~일요일 저녁9시까지
정대 쓰레기를 내놓으시면 안돼요
낮에도 정대 안돼요

주소	일단	음식물	재활용
용사마을	수거일: 월~금 배출일: 일~목	수거일: 화~목 배출일: 일~목	수거일: 월~목 배출일: 일~목
탄요동 152~159	배출일: 일~목	배출일: 일~목	배출일: 일~목

용사마을 일만, 음식물, 재활용 배출시간: **화요일~내일(5시~11시)**

마을에는 넓은 형광등 분리수거함이 있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여서 이 수거함을 마을주민들이 시에 바꿔 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다. 그러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섰다. 어떻게 하면 깔끔하고 조금이나마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마을주민들과 상의하고 여러 재료로 논의한 결과 목재로 만들어보자는 결론을 내렸다. 부랴부랴 준비하고 공방과 상의하고 페인트를 준비하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만들기 시작했다. 도면을 그리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도면이 완성되고 방부목을 준비하고 잘랐다. 모양이 점점 갖춰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이 모여 마지막으로 페인트칠하고 명칭을 붙여 완성되었다. 어떻게 하면 비에 조금이나마 잘 견딜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만들었다.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면 한다.



강사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다.

“쓰레기를 만들지 마라”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고 싶은 명품 동네”
동탄 2동을 만드는데 주민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환경 지킴이가 되자.
“아자~ 아자~ 아자~~ 힘내세요!” 동탄 2동을 사랑합니다.

신축(新築) '동탄중앙도서관'을 미리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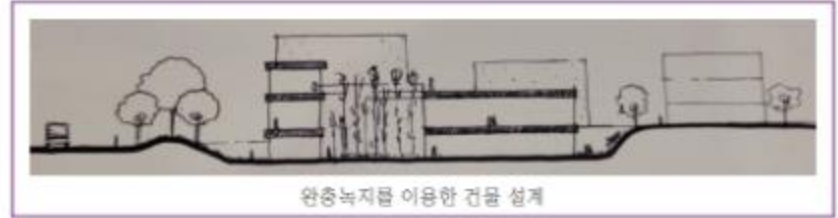
- 동탄2동에 화성시 최대 규모 중앙도서관 건립 예정
- 화성시 관내 시립도서관 통합·관리 목적

동탄중앙도서관 건립 취지는 화성시 문화시설 이용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시설물 조정 계획에 따라 도서관을 이전하고 신규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시 관내 시립도서관을 통합·관리할 목적도 겸해 건립될 예정이다. 동탄중앙도서관은 구)목리초등학교(반송동139,솔빛유치원옆)부지에 규모는 10,000 (10,491.72)㎡로 지하1층~지상4층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으로 추후 설계는 변동 될 수 있다.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은 2019년 4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12월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설계 및 기본적인 구성을 민관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동탄권역 동탄1,2,3동 주민 18명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12월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도서관 공간 구성 및 내부 인테리어 콘셉트를 공유하며, 현재까지 3회 정도의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 12월까지의 설계 용역 부분을 완료하고 내년(23년03월)에는 착공하여 공사 준공은 24년 9월에 할 예정이다.

완충녹지를 이용한 지상 1층 일반자료실은 도로변에 보면 지하층으로 생각할 만큼 2.7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여 자료실 이용에 있어 각종 소음 등을 차단하는 설계로 이루어져 있다.



완충녹지를 이용한 건물 설계

<도서관 지상층별 위치도>

- 완충녹지를 이용한 건물 설계로 각종 소음 방지 효과 극대화
- 자료실 내부에 빛과 자연이 하나된 빛우물 생태정원 조성

지상 1층 일반자료실층은 공용맞이(로비층) 공간의 아래층에 위치하는 데 빛우물공간(생태정원) 도입과 전면 차도면의 완충녹지를 적극적으로 끌어 들여서 소음 및 환기나 일조 등의 기능적이고 시각적 쾌적성을 확보한 실내공간이 되도록 설계 되어져 있다.

일반자료실층은 총 457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집중독서공간은 81석, 일반독서공간은 376석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연속간행물실, 멀티미디어실, 장애인열람실, 가족자료열람실, 일반자료실 및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외부 독서 휴게마당을 배치하여 각종 조경석과 더불어 식재되는 나무들을 이용하여 숲속에 온듯한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실내 휴게라운지와 연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주출입 지상 2층 로비층에는 어린이자료실을 비롯한 장난감도서관, 북카페, 미디어공간인 일명 "지식의숲" 이 위치하고 있다.

어린이자료실에는 총 6만1천여권의 장서를 배치하고 좌석수도 100석 수준으로 어린이 전용 이벤트홀이 별도로 구성 되어져 있다.

특히 미디어공간 "지식의숲" 은 각종 강연, 공연, 영화, 휴식 등을 한번에 즐길수 있는 계단식 공간으로 지상 3층 외부 테라스 "공공의마당" 와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져 있다. 이는 기존 열람실 위주의 막힌 공간에서 벗어나 열린 공간을 이용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조성된 것이다.



<어린이 열람실>

<미디어공간 "지식의숲" >

지상 3층 문화/교육시설층은 대형강의실과 동아리실 그리고 각종 전시공간과 어린이문화교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옥상 정원인 "공공의마당" 에서는 계절감을 느낄수 있는 수목들을 식재하여 아늑한 휴게공간 분위기가 연출되도록 조경할 계획이다.

마지막 지상 4층 사무관리층에는 화성시 관내 통합 도서관 사무업무를 관장할 사무실과 태양광 시설이 배치될 예정이며, 지하 1층에는 전기실과 보존서고 및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동탄중앙도서관의 야간 경관인 빛조명 부분은 건축물 야간경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안전성과 쾌적성 및 조화성을 고려하여 도로조명 또는 생태계에 악영향과 이용자의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조명 연출이 설계될 예정이다.

- 민·관이 함께 설계하며 구성해 나가는 동탄중앙도서관
- 건립추진위원회와의 소통으로 주민 편리성 도모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청회를 통해 실무진 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에 동탄중앙도서관의 총 주차대수를 초기 설계 52대에서 현재(22년9월기준) 82대로 추가 증설하였으며, 동탄 인구 고령화로 인한 향후 고령자 시설물 추가 설치 및 운영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향후 도서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비용 절감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건축 이후 운영상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한층 더 지역 주민에게 이질적이지 않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공의 플랫폼 역할을 다하는 동탄중앙도서관으로 건립됨과 동시에 운영 될것이라 사료된다.

중앙도서관 건립 계획

(현재일정, 설계, 시공, 개관일)

- 사업기간: 2019. 4. ~ 2024. 12. (예정)
- 2021.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건립추진위원회 1회 개최
- 2022. 3. 건립추진위원회 2회 개최
- 2022. 5. 건립추진위원회 3회 개최
- 2022. 12.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 예정
- 2023. 3. 공사 착공 예정
- 2024. 9. 공사 준공 예정
- 2024. 12. 도서관 개관 예정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의-2021년12월)

현재 화성시 도서관 현황은 27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중 공공도서관 18개소, 작은도서관 9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총 장서는 174만권을 소장 운영하고 있으며 신축될 동탄중앙도서관에만 13만권이 추가로 소장될 예정이다. 이는 화성시 전체 소장 도서 중 7% 정도가 중앙도서관에서 운영될 예정인 것이다.

서가(書架)를 형상화한 건축물

- 같은 공간(空間) 두 개의 장소(場所)
- 지속적인 커뮤니티를 위한 "공공의마당"과 함께 하는 도서관



책을 여러권 쌓아놓은 모습과 책 한권 한권의 형상을 도서관 외관에 접목하여 디자인함.

<동탄 중앙도서관 디자인 상상도>

동탄중앙도서관은 한동안 공공 대지로 비워져 있던 구)목리초등학교 부지에 책 한권한권 쌓아올린 형상의 외관 디자인으로 건물을 배치하고 공공 플랫폼으로써의 도서관 기능을 극대화시킨 구조물로 건축된다.

또한 보행자의 접근이 대체로 편리한 지상 2층에 북카페와 로비를 배치하고 일반자료실은 지상 1층에 비중있게 설계되었다.

동탄 1신도시, 노후 보도 개선 사업

2008년 동탄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별도의 보도블록 정비가 없었기에 따라 보도의 노후화 및 파손이 발생하였다. 보행 불편 등의 민원이 접수되어 보도 개선 사업이 추진되었다.

2021년 11월 주민 자치위원회 월례 회의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을 개선할 필요로 보도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동탄 2동에서는 노후화 구간에 대한 부분 보수 사업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다. 그 결과 4월 18일부터 6월 12일까지 두 달여에 걸쳐 보도를 개선하였다.

인도를 걷어내고 보도블록을 다시 깔았다. 침하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지기 작업을 꼼꼼히 하였으며 바닥의 평탄화 작업을 통해 단단하게 만들었다.

공사가 끝난 보도블록 위에 모래가 흩어져있어서 마무리가 덜 된 것인가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주민들이 모래와 보도블록을 같이 밟고 다녀야 보도블록이 자리를 잘 잡는다는 것이 시공사 측의 설명이다.

공사하는 동안은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걷기 좋은 길, 안전한 길로 탈바꿈됨으로써 보행하는 걸음걸이가 훨씬 쾌적해졌음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동탄 2동, 주민자치회와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육쪽 마늘 캐기**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지난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동탄2동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단 협의회, 자율방재단, 적십자봉사회 등 회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동탄2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이어온 서산시 인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마을로 떠났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위축되어 있던 이웃과의 소통이나 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로 활성화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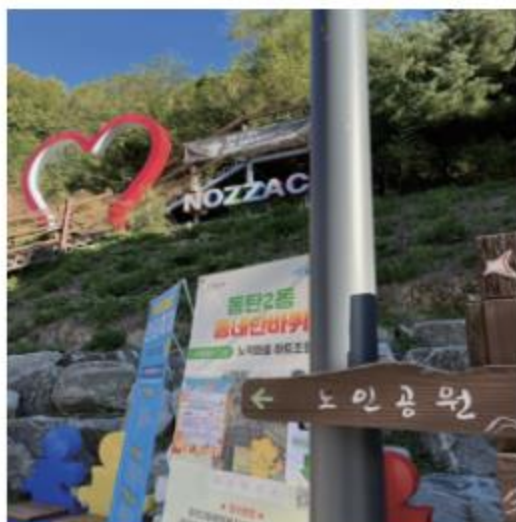
주민자치회란 주민 누구나 참여해 우리 지역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해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대표 기구이다.

2021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서산시 인지면 주민자치회와 올해 3년 차인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동탄2동 주민자치회는 자매결연을 통해 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이 11번째로 서산시 인지면으로 육쪽 마늘 캐기 봉사활동을 함께 했다.

서산시 인지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자매결연 이후 한번도 빠짐없이 찾아주는 동탄 2동 주민자치회”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며 동탄2동 주민자치회 역시 “어릴 적 부모님이 농사지를 때가 생각나며 오늘 하루 보람 있는 시간을 보냈고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정을 느끼는 시간” 이 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동탄2동 주민들은 서산 육쪽마늘 캐기를 통해 토종 농사에 대한 소중함과 농촌 일손 돕기에서 뜨거운 햇살에도 쉬지 않고 600여 평 되는 마늘밭의 마늘을 수확했다.



노인공원의 새 이름을 찾아라!

노작 마을에 있는 장미정원을 지나면 반석산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보인다. 계단 앞에는 이정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오산천 산책로’, 왼쪽으로 가면 ‘노인공원’으로 갈 수 있다고 되어있다.

‘노인공원’의 명칭은 지난해 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노작 마을 발전협의회에서는 ‘노작쉼터’로, 통장단협의회에서는 ‘노작 시민의 숲’으로, 노작 마을주민의 의견은 ‘노작 하늘공원’, ‘노작 하늘파크’로 제안했다.

현재 세 개의 명칭(안) 중 노인공원의 새 이름을 검토하는 중이고,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를 파악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동탄 2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지원관 김가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한다!

“동탄 2동 자율방재단”



화성시 자율방재단(단장 신상희)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와 동 법 시행령 제60조 등에 의한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민간 자율방재 조직으로 자연 및 사회 재난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의 민간 역할 분담을 하는 단체이다. 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순수한 민간단체로 자연 및 사회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과 재난 관련 피해 발생지역 사전 감시활동, 신고, 정비 등의 활동을 한다. 또 재난 지역의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응급 복구와 감염병 확산 방지 활동 및 보건 관리를 시행하며 이재민의 대피소 관리와 긴급구호물자 조달을 담당하고 있는 봉사 단체이다. 자율방재단은 전국 228개 지자체에 약 8만 명이 조직돼 있고 일상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와 응급 복구를 돕기 위해 설립된 민간법정 단체이다.

화성시는 2007년부터 지역 자율방재단을 설립해 현재 28개 읍면동에서 총 62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고 동탄 2동 지역 자율방재단(대표 최미선)은 2021년부터 자율방재단이 조직되어 단원 20명 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계절별 업무가 각각 다르며 봄철 해빙기 예찰 활동을 시작으로 화성시 관내 무더위 쉼터 전수조사, 나무 전도 제거 활동, 해충 피해 예방방역, 해안가 대조기 예찰 및 낚시 객 계도, 실종자수색, 침수지역 복구, 수중 정화 및 해양환경정화, 코로나19 소독 활동 및 안전 점검 캠페인, 호우 피해 지역 복구, 겨울철 제설 활동, 타시도의 재난에 대한 장비, 인력지원 등 재난 재해에 관한 활동을 한다.

업무별 조직으로 총괄팀, 홍보팀, 예찰팀, 복구팀, 구호팀, 구조팀, 장비 지원팀으로 역할 분담 하여 읍면동별 업무별 조직들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단원들의 역량 강화(응급처치, 드론 교육, 다이빙 교육, 트레일러 교육, 조종면허, 아마추어 햄, 중장비 교육 등)에 주력을 두어 전문적인 봉사자로서의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여 재난, 재해에 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중점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봉사활동과 구분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단원들이 품격 있는 봉사단체로서 화성시를 비롯하여 동탄 2동의 주민들의 안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화성시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재난과 재해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방재단 단원으로 활동하며 동탄 2동 구석구석을 돌아보게 되었다. 동탄 2동의 안전을 위해 예찰 활동을 하며 환경정화 활동도 같이하였다. 매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탄 2동을 더 잘 알게 되고 단원들과 봉사하며 새로운 이웃이 생겨서 좋았다. 특히 장마철을 대비해 배수로 정비 봉사활동을 하며 단원들과 구슬땀을 흘리며 힘들었지만 보람되고 방재단 봉사활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동탄2동 주민들은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면 자율방재단이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를 하면 된다. 또한 화성시 자율방재단을 기억하고 응원에 주면 자율방재단 단원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다.



우리 동네 방재 방역 우리가 지키고 보호한다
동탄 2동 자율방재단 대표 최미선

주민 참여 광장

여름 날

정지웅 (초 6)

햇빛이 쬐는 어느 날

선글라스 벗고
수영하러 달려가네

수영할 곳은 다름 아닌
바다라네

에어컨

주현이 (초 6)

집안이 가마솥이 된 것 같은 여름에
집안을 겨울처럼 만들어주는 에어컨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에어컨

잠깐만 꺼도 10분 만에 찾게 되는
시원한 에어컨

종이비행기 (주민 참여 광장)

여러분들의 작품을 기다립니다.

심심할 때, 또는 대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접는 자체가 재미있어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곤 하지요.

종이비행기를 날리듯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휘해주세요.

분야 : 전 분야 (그림, 만화, 시,
에세이, 사진 등 위든지.)

대상 : 동탄 2동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
작품이 실리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E-mail : dongtan2dong@naver.com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희망을 이어가는 동탄2동 적십자봉사회!



1. 동탄2동 적십자봉사회 소개

우리 동탄2동 적십자봉사회는 2010년 4월에 창단하여 현재 김영주회장 이하 24명의 봉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기본원칙(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봉사, 단일, 보편)'을 바탕으로 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희망풍차 결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혜자 맞춤형 물품지원과 함께 청소등 가사서비스, 말벗 등 정서안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동탄2동 적십자봉사회의 관내 봉사활동

▶ 주된 봉사활동으로는 동탄2동에 거주하시는 독거어르신 25분에게 주2회 야쿠르트 전달을 해드리며 안부를 여쭙고 말벗을 해드리며 고독사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희망풍차 결연세대와 봉사원간 1:1 결연을 맺어 상반기, 하반기 각 8회이상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전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생필품 및 기부물품, 후원물품이 나올때마다 비결연 세대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3. 동탄2동 적십자봉사회의 관외 봉사활동

▶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어르신을 위해 운영하는 경로식당에서 점심 배식봉사를 주1회 정기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에 참석하여 헌혈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혈액수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헌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세요~~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 변함없는 동행, 한결같은 봉사로 따뜻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변에 위기가정이 계시다면 소개해 주세요~~ 함께 봉사하실 분도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세요~~ 동탄2동 적십자 봉사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찰크낙서 꽃 세계의 배꾸기, 능소화



주목 숲에 뿌리 내려
도둑처럼 살금살금
검검한 주목 숲에서
더듬 더듬 기어 올라
주목 가지 칭칭 감고
무리 지어 합창하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솨 뒷 이야기

아파트의 주목나무 꼭대기에 능소화가 핀 것을 보고 남의 동지에 물레알을 낚는 배꾸기가 생각났다. 배꾸기 같은 아이들은 물고기계에도 있다. 각지의 산란장에 알을 낚는 감돌고기다. 그런데 주목 꼭대기에서 핀 능소화를 보니 꽃의 세계에도 배꾸기가 있다는 걸 알았다.

글&사진 : [한국웃음문화연대] 윤이나

비운의 코로나 학번, 20학번 캠퍼스 라이프

코로나19는 창궐과 동시에 전 세계를 강타하여 공포에 떨게 했다. 우리나라에는 2020년 1월부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대학 합격증을 받고 입학만을 기다리던 20학번 학생들에게도 예외는 없었다.

개강이 2주가 연장되었다. 2주 뒤에 캠퍼스에서 만나자는 교수님들의 문자와 메일이 날아왔다. 그리고 약속한 2주가 지난 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교수님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마다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 클래스 사이트, 줌 등 다양한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사상 초유의 비대면 강의를 시작되었다.

교수도 학생도 학교도 처음 겪는 일이었다. 효율적인 대책을 찾기 위해, 더 나은 양질의 수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나 당연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집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로부터 '고등학교 수업의 연장선이 아니냐?' 등 불만을 표하는 말들을 듣는 일도 다분했다.

학생들은 캠퍼스에 자주 가지 못했다. 애초에 대면 시험을 제외하고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명분을 가지고 첫 수업을 듣게 된 것은 3학년이 되고부터다.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 문화학과 20학번을 표본으로 설문조사 해본 결과, 80%가 넘는 학생들이 이와 같다고 대답했다. 또한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 정책, 저녁 6시 이후 제한이 생기는 정책,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만 입장을 허용하는 정책 등 여러 갈래로 바뀌는 정책들 때문에 어떤 모임도 지속해서 가지기 힘들었다.

우선 적으로 가히 대학교의 꽃이라 불리는 동아리 활동도 동아리원들과 만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밴드부 같은 경우에는 합주 연습을 해야 하는데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없으니 연습을 나눠서 해야 했기에 지장이 컸고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단체도 대면으로 모이는 데에 제한이 있다 보니 회의는 전부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였다. 학과 차원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기획조차 할 수 없었다. 단지 학교 수업뿐만이 아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기타 활동에도 제한이 많았다.

이 기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기재하려고 했음과 동시에 기자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코로나19는 율봉 진정되는 추세인가 싶더니 다시 또 심해지는 양상을 띤다. 언제 종결될지 모르겠지만 부디 하루빨리 종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천윤주 기자

다문화 사회와 지원 방안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인터넷이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면서 점점 다문화와 공존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농업, 어업, 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 업종들에 외국인들을 수용하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 단일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고 살던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들을 수용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의 숫자는 대략 245만 명이고 현재 결혼하는 10쌍의 부부 중 1쌍은 외국인과 결혼하고 있을 만큼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역시 늘어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하고 다문화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차별이나 편견이 예전보다는 줄어들었지만, 현재까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다문화 가정들이 없지 않다.

대표적으로 인종과 피부색으로 차별하는 경우, 저소득층이라는 편견을 갖는 경우, 한국어가 서툴러 무시하는 경우, 사회와 문화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이 국적에 따른 종교적인 차별, 현재 유행 중인 코로나 19로 생긴 차별, 한국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편견 등 근거 없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한다.

실제로 2018년 기준 다문화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율은 8.2%로 연도 전체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비율 1.3%에 비해 6배 이상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사이버 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한국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소통문제와 편견과 차별대우라 꼽았고 응답자의 59.2%는 차별 대우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차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사실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문화에 대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존중과 화합을 시도해 나가면 된다.

먼저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을 늘려야 한다. 초등학교와 비교를 하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다. 단순히 동영상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직접 느낄 수 있게 하는 정책도 늘리면 좋겠다. 예를 들어 직접 다문화 가정을 만나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학교로 와서 그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등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들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마련하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정책들을 만들면 소통문제와 문화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큰 정책들이 아니어도 사소한 곳에서도 편견과 차별을 줄일 방법도 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에 다문화 가정 관련 캠페인을 하고 홍보하여 사람들에게 문제점들을 많이 알리면 차별과 편견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나라가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수용하고 단일민족과 한국의 전통만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끝내고 우리나라 사회의 근본적인 발전과 다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노력하고 더 생각한다면 어쩌면 차별과 편견이 없는 따뜻한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김규리 기자

다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이뤄냈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적어보려 한다.

'보안'이라는 분야를 알게 된 건 학창 시절 영화를 보면서였다. 영화를 보고 '멋있다'라는 생각 하나로 '정보보안'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다. 그 꿈을 안고 관련 분야에 전공을 선택하여 대학에 입학한 것이다. 하지만 영화로 보았던 보안은 현실과 확연히 달랐다.

보안이라는 분야는 생각보다 넓고 다양했으며, 정말 어려웠다. 학과 커리큘럼에서 1학년 때 이론만을 배우다 보니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다. 이론보다는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느껴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나는 학점보다는 커리어를 쌓기로 했다.

우선 학과 동아리에 들어가 이론보다는 실습을 위주로 공부를 했다. 직접

프로그램을 사용해보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서 몸에 익혔다. 학과 동아리로 2년간 실력을 쌓은 뒤, 보안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이후로는 학과 대회와 외부 대회를 나가, 수상 경력을 쌓았고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를 했다. 이렇게 완성된 이력서를 가지고 조기 취업하게 되었다.

18학번보다 낮은 학번인 친구들에게 작은 조언을 하자면, 첫째, 1학년 때 그냥 놀라고 하고 싶다. 어정쩡하게 공부할 거면 차라리 화끈하게 놀고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다. 자신이 들었던 교육, 자격증, 수상 경력, 대/내외 활동 등을 정리를 잘해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한번 작성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셋째,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자신이 무엇을 즐기고 좋아하는지 알아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사교성도 길렀으면 한다.

임성희 기자

역사와 전통있는 **솔빛 배드민턴 클럽**



나에 대한 투자, 40대의 열정

2012년 솔빛중학교에서 시작되어 솔빛 배드민턴 클럽으로 이름 지어졌다. 올해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회원은 60명 정도이다. 이 중에 창립 멤버는 현재 6명 정도 남아있다.

배드민턴 생활체육은 40대가 제일 많다. 보통 아이들을 키우고 40대에 가입해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40대, 45대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정도이다.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어 솔빛 배드민턴 클럽은 50대도 많다. 남녀 성별은 7대 3 정도이며 여성분들이 집에서 주부 일을 하다 보니 적을 수밖에 없다.

동호회의 효과 과소평가하지 마라

“배드민턴을 처음에 우습게 보고 1년 반 정도 배운 동생과 체육관에서 같이 쳤다. 25대 1로 졌다. 아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구나 생각되어 입문하게 되었고 10년 정도 되었다.” 가볍게 생각할 운동은 아니다.

배드민턴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이라 365일 할 수 있다. 비 온다고 못 하고, 춥다고 못 하고 하는 일은 없다. 땀 흘리며 운동하니 칼로리 소모가 많고 유산소 운동이라 살 빼고 싶은 분들에게 너무 좋은 운동이다. 기본적으로 한 두 달 정도만 하면 6kg~7kg 빠진다. 뱃살도 꼭 들어간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골프나 다른 운동에 비해 돈이 크게 들지 않아 좋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면 50% 지원도 해준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등록하시기 때문에, 인가관계도 넓어진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다. 다른 운동도 그렇지만 배드민턴은 A부터 E까지 등급이 있다. 입문자 초심이 있고 우승을 하면서 등수 안에 들어가야 승급을 한다.

민주적인 절차를 가진 클럽

동호회는 임원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모든 일을 결정 한다. 큰 건은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예를들어 유니폼을 선정해야 할 때 투표를 한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유니폼인데도 투표로 결정이 되면 따라줘야 한다. 회비는 월 2만원 정도 걷어 진행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만원 정도 걷고 있다. 그런데 이제 2만원으로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야 밥도 먹고 할 수가 있다.

코로나로 학교가 개방을 하지 않아 떠돌이 생활을 한다.

학교가 개방을 하면 학생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2시간 정도 진행되고 주말에는 4시간 정도 친다. 선수들은 단식으로 치기도 하지만 동호회는 4명이 같이 복식으로만 치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다. 현재는 학교가 개방을 안 하다 보니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여러 사설 체육관을 이용해 왔으며 현재는 동탄2 크리에이티브센터 배드민턴 전용 구장을 이용하고 있다. 만약 학교가 개방을 안 하면 동탄 경찰서 쪽에 20개 코트가 있는 구장이 생겨 이쪽으로 옮길 생각이다.

행사는 크게 4개가 있는데 1월 초 안전지원제, 6월 상반기 결산, 10월 창립기념일, 마지막 12월 말 하반기 결산(총회)이 있다. 그때 회비들이 사용되고 또한 대회 나가면 음료수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찬조도 일부 받기는 한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배드민턴에 가져주세요.

말한이 : 박일용 부회장, 박시우 총무 / 글쓴이 : 김은희기자

솔빛 배드민턴클럽 가입문의 010-8780-7580

무궁화여, 영원무궁하라! [연재_향연의 꽃과 풀과 나무 이야기]

무궁화(無窮花)는 꼭두새벽에 영봉한 이슬을 머금고 피어난다. 해맞이하며 해와 함께 종일 놀다가 해 질 무렵이면 슬그머니 꽃잎을 봉우리처럼 단정하게 오므린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꽃송이째 소리 없이 떨어진다.

하루를 살아도 묵묵히 제 할 일 다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무궁화는 3천여 년 전부터 군자의 나라, 예의의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저술된 동양에서 제일 오래된 지리서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훈화초가 있어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진다. (君子國有薰花草朝生暮死)고 하였다. 여기서 군자국은 우리나라이고, 훈화초는 무궁화의 한자명이다.

무궁화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꽃이다.

오늘의 꽃은 오늘로 끝낸다.

내일은 내일의 꽃이 새롭게 다시 핀다.

날마다 새로움을 창조하는 꽃이다.

무궁화는 봄꽃들과 다투어 피지 않는다. 봄꽃들의 다름이 끝나면, 한여름 칠월에서 늦가을 시월까지 백일동안 피고 지는 꽃 잔치를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른다. 그야말로 한 마디로 영원무궁(永遠無窮)의 진수를 보여 주는 꽃이다. 무궁화는 소박하고 순수하며 중용의 미덕을 갖춘 꽃이다. 모란처럼 풍요롭지 않고, 장미처럼 요염하지 않고, 은근과 끈기를 함축한 무궁화의 꽃말은 일편단심(一片丹心)이다. 우리

민족정신이 깃들여 있고 우리 민족의 얼이 스며져 있다. 무궁화 가운데는 흰색에다 화심에 붉은색이 박힌 백색 단심이 있고, 진홍빛 화심이 있다.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우리 민족의 애국심을 보여 주는 듯하다. 이것이 바로 무궁화의 꽃말인 '일편단심(一片丹心)'이다. 창덕궁 진선문 입구 우측에는 무궁화 나무가 세 그루 있다. 궁궐 안에서 왕족들과 대대로 살아온 왕족들의 후손일까? 시중의 무궁화와 빛깔이 완연히 다르다. 한껏 무르익어 아름다움을 뽐내다. 농염(濃艷)한 자태에 넋을 잃고 한참 있다가 찾았다.

윤보현 기자



꽃 중의 꽃, 무궁화여! 영원무궁하라!



창덕궁 진선문 일 무궁화

건강과 행복의 향기가 울려 퍼지네

8월 중북이 지난 어느 여름날 “매 엠~ 매 엠~ 매에 엠~~” 하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는 매미들의 합창 소리가 태양 끝에 달을 기세로 온 힘을 다해 힘차게 울고 있다. 울여름 유난히 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가득 찬 동탄 2동 탄요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소개한다. 실외 온도는 34° 넘을 정도로 뜨겁다. 게이트볼장의 15명~20명 회원들의 뜨거운 운동 열정도 실외 온도 못지않다.

게이트볼은 티(1) 자형 스틱으로 볼을 쳐서 경기장 내 3곳 게이트를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공을 풀대에 맞히는 구기 종목이다. 골프나 당구와 비슷하지만 규칙이나 방식이 다르다. 한 팀이 5명씩, 두 팀 10명으로 나뉘서 게임을 한다. 1번~10번의 공이 있다. 홍 공은 홀수 공, 백 공은 짝수 공. 홍 공이 선공을 하고 백 공은 후 공을 한다. 두 팀이 정해진 타수에 의해 30분간 경기를 진행한다.

예전에는 70~80대 어르신들의 운동이었으나 지금은 생활체육이 보편화되면서 50대로 연령이 낮아져 젊은 층도 즐긴다. 남녀 구분이 없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와 동탄 2동 마을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단단히 뭉쳐져 있다. 서로 간의 건강 관련 안부를 묻고 우의를 돈독히 할 만큼 인정이 넘친다. 치매 예방에 좋고 체력 단련하기에 안성맞춤인 운동이다.



잠시 휴식 시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맛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다.

화성시 대회, 화성시 동부 대회 등등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각종 시합을 대비하여 날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탄요 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무심코 지나면서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주민들도 계신다. 그래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고 수시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다.

동탄 2동 주민이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고 초보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초보자의 경우는 개인 지도도 받을 수 있다.

게이트볼장 운영 시간은 오전 08시부터 오후 19시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관심만 있으면 편안하게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연중무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실외 경기장도 많지만 동탄2동은 실내 게이트볼장과 실외 게이트볼장이 있다.

실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상관없이 사계절 운동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도 되어 있어 좋다.



8월 중북이 지난 어느 여름날에

회원 상호 간의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친목 도모는 물론이고 서로의 대회 상대가 되어 주기도 한다. 휴식 시간에는 평상 주위로 도란도란 둘러앉아 휴식 시간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회원들은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열정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이마에는 땀방울이 뽁뽁 맺힌다.



탄요 공원, 게이트볼 회원 수시 모집

“게이트볼 회원의 지켜야 할 사항”

1. 회원 간 존중하며 배려한다.
2. 회원 간 실수를 탓하지 않는다.
3. 회원 간 단점을 들추거나 말하지 않는다.
4. 내 생각이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 회원 간에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를 존중하자.

최옥민 기자

자 유 목 홍권표

마당을 잔디로 덮고
사이사이에 나무를
되는대로 심었다

저마다 꿈을 꾸면서
좁은 터에 어깨를 부딪히며
세 잘난 양으로 커간다

나는 나 대로 클 거야
좁아도 괜찮아

가지가 서로 얽혀도
바람에 같이 흥청거리며
어느새 감나무에는
커다랗게 감들이 열렸다

마당에는 되는대로
크는 나무들이 있다



신나는 댄스와 함께 힐링의 시간을!

동탄2동 주민자치프로그램 라인댄스와 다이어트 댄스, 강은희 강사



동탄2동 주민자치회는 분기별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현재 3분기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열렬한 참여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다. 소식지 이번 호에서는 라인댄스와 다이어트 댄스를 강의하시는 강은희 강사님과 인터뷰를 통해 라인댄스와 다이어트 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더위까지 싹 날려주는 열정의 수업

2022년 8월은 유독 폭우로 몸살을 앓던 날이 많았다. 강은희 강사와의 인터뷰 날은 다행히 맑간 해와 뜨거운 열기로 평년의 여름 날씨를 되찾은 날이었다. 습하고 눅눅한 빗속이 아니라 서 자전거를 타고 움직일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강당에 도착하여 묵직한 강당 문을 잡아당기고 들어서자 예상치 못하게 수강생분들의 관심을 받았다. 강사님과 수강생분들께서 인터뷰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서 감사한 생각마저 들었다. 강의실 내부는 에어컨 덕분에 시원했지만 춤으로 가득 찬 열정과 친절한 분위기는 온기를 품고 있다.

수업 끝나기 10분 전, 열정적인 두 곡이 흥겹게 이어지고 스트레칭으로 수업은 마무리된다. 강사님의 허스키하면서도 다부진 목소리가 인상적이다.

라인댄스, "젊은 층들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춤에 무지한 필자는 막연히 라인댄스가 몸의 라인을 예쁘게 하는 댄스라고 생각했다. 강은희 강사님이 줄(Line)을 맞추어 추는 춤이 라인댄스라고 바로잡아주신다. 네 방향과 두 방향, 스텝을 맞추는 춤이다. 방향과 동작을 생각하며 추는 춤이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몸 전체를 움직이고, 서서 하는 동작이 많은 만큼 하지 근력에도 도움을 주어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알려주신다.

춤의 테크닉이 복잡하지 않고 음악이 빠르지 않아서 흔히 몸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춤이다. 특히 라인댄스는 다른 댄스들에 비해 비트(beat)가 빠르지 않다. 몸의 움직임에 무리가 없고, 음악 자체를 즐길 수 있어서 힐링하기에 좋다고 덧붙인다.

"삶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죠, 음악이 너무 좋아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빠른 댄스에서는 에너지를 쏟아 내며 다시 에너지를 얻는다면 라인댄스 음악들은 적당한 비트와 함께 몸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에너지를 보완해가는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라인댄스가 노인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전한다. 젊은 층들도 무리하지 않고 즐기기에 좋은 동작이므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도전해 볼 수 있고, 삶의 활력도 얻을 수 있으므로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기 좋은 운동이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치고 우울해진 사람들에게 삶의 활력과 힐링을 줄 것이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70세 이상 수강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자치회에 문의해서 참여해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다이어트 댄스는 뭔가요?

다이어트 댄스는 라인댄스보다는 젊은 연령층이 선호하는 댄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수강생의 연령 분포는 3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정도이다. 다이어트 댄스의 특징은 반복된 동작으로 허벅지, 허리 등의 근력에 집중하여 강도를 높여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이다. 다이어트도 하고 흥이 나는 동작으로 생활의 활기를 얻을 수 있다.

어깨 수술을 미뤘어요!

강은희 강사에게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다고 질문해본다. 어깨 통증이 심했던 수강생이 있었는데 수술 날짜를 예약하고도 꾸준히 라인댄스를 하며 몸을 풀어주고 동작을 하였더니 어깨가 좋아진 수강생이 있었다. 그래서 어깨 수술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당장 통증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플수록 꾸준한 스트레칭과 동작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어떤 분은 우울증에 시달리며 잠도 못 주무시고 약을 복용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랑 라인댄스 하시면서 생기도 되찾고 저의 파워 넘치는 에너지도 얻으면서 서서히 약도 줄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대요, 라인댄스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 외에도 수강생들은 댄스 수업을 할수록 표정에 변화가 생기고 의상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이러한 변화는 댄스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에너지의 원천이 된다. 강은희 강사는 크든 작든 이러한 변화를 느끼며 본인도 행복해지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소파와 침대로부터 멀어주세요"

군더더기 살없이 날씬함을 유지하시는 강사님께 그 비결을 묻는다.

"소파와 침대로부터 멀어주세요,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10분씩만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는 세포를 깨우도록 도와주고, 저녁에는 세포가 잘 쉴 수 있게 도와줍니다. 릴렉스되는 거죠."

강사님께 춤이란?



〈라인댄스 강은희 강사〉

강은희 강사는 30년 동안 춤과 함께 살아왔다.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좋을 때나 위기가 올 때나 언제나 춤은 함께 했죠, 나를 버티고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실버를 위한 동작과 춤'을 많은 분께 전파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포부를 밝히신다.

강은희 강사님은 지금까지 춤에 대한 열정을 펼쳐버린 적이 없다고 한다. 허스키한 목소리에서 수업에 대한 열정과 실력이 보였다면 차분하고 단아한 어조에서는 성실과 진정성이 전해졌다. 안과 밖을 잘 다스리는 분 같았다.

안지원 기자



네이버 검색 :
동탄2동 주민자치센터 (dt2.megavr.kr)
문의 : 031-5189-4756

우리 마을 시 의원, 마을 정책 이야기

동탄 2동 솔빛마을 출신, 화성시 다 선거구, 이은진 시 의원



< 이은진 시의원 >

지난 6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시 의회는 (화성)시 의회의 구성원으로 (화성)시의 행정, 사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 결정하며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하는 업무를 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한다면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시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우리 마을의 시의원은 누구일까? 제9대 화성시의회의원에 당선(2022. 7~)된 이은진 의원으로 2018년 제8대에 이어 재선했다. 소식지에 실을 기사를 모색하던 중 주민자치회를 통해 이은진 의원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연락을 시도하였는데, 감사하게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셨다.

시 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솔빛마을에 입주하기 전에 아파트입주예정자 지원 대책 모임이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 관련해서 불편 사항이나 요구사항,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면서 활동하기 시작했죠. 입주민들께 도움을 드리는 일 자체가 보람 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회의, 동탄신도시입주자연합회 총무, 주민자치회 등 시민 활동으로 확대되었지요. 봉사에 가까운 활동이었지만 보람을 느끼며 지속해서 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활동을 꾸준히 지켜본 동료와 지인께서 시 의원 후보로 추천하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오랜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되었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내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해볼만하다는 생각을 했죠. 또한 입주민지원대책위원회의 일처럼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의 윤활유 역할이라 생각해서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잘 할 수 있고 뛰어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시의원이라는 공식적인 명분으로 시민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요 활동과 성과는 무엇인가요?

시의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조례를 제정하는 일인데요, 제가 상임위원회로서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의결했던 안건들이 있어요. 먼저 장애인 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을 100%로 면제하는 조례로 개정한 점이 큰 성과였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자치법규 > 법규본문 (law.go.kr) 2022.3.14.(일자) 장애인 주차료는 해당 시의 재량인데, 일반적으로 50%

정도 감면되고 있고, 화성시 또한 50%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만 한해서 100% 면제로 개정했죠.

또 병점역, 동탄역 등 공중화장실(여성)에 여성 위생용품(생리대)을 비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어요.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자치법규 > 법규명 (law.go.kr) 처음에 시행할 때 빼들리거나 채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화성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을 믿고 시행해보기로 했죠. 지금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에서 하는 복지사업, 문화, 공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이 정보를 찾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후에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이 구축된 걸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대상자별 복지혜택을 검색하기 좋아지도록 하고, 이용자들의 편리에 우선순을 둔 플랫폼을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만족도도 큰 것 같습니다.”

현재 주요 현안은 무엇인가요?

1동탄에 여유 부지 에 대한 현안에 관해서 관심가지고 검토 중인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제9회 시의회가 출범하였으니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일의 회기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조례, 예산 활동은 민원 접수, 정책회의, 심의, 결정 등 시행하기까지의 행정적 절차가 길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만큼 신중함이 필요하니까요.

현재 추진중인 조례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안건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보호종료아동에게는 사회진출에 대한 고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생을 마감한 보호종료 대학생의 외롭고 가슴 아픈 죽음을 보면서 정치가 누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외된 곳에 계시는 분들을 잘 살피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성시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좋은 어른법’은 본 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좋은 어른법’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18세에서 만 24세로 연장할 수 있고, 자립지원금 및 정서적 안정과 주거 안정 등 지원함으로써 ‘보호’에서 ‘자립’을 위한 시스템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명분은 있으나 친분은 없다.”

의정 활동을 오랜 시간 하면서 느낀 점은 ‘도덕적 기준’과 ‘유연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타야할 때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덕적 기준을 우위에 두는 조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의견

충돌은 성과 대신 소모적인 대립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또한 ‘내 집 앞의 이익’만을 위한 요청이 요구될 때는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투명성을 통해 정당성을 밝히고 ‘친분보다는 명분’이라는 신조를 되새기고 감조합니다. 형평성의 문제, 위법과 불법의 근거를 찾아서 보편타당하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편이기도 하고요. 당연하다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초심과 신조는 가장 바르고 명확한 해답이기도 한니까요.

동탄2동 주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동탄 2동은 여러 타지역과 견주어볼 때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동네입니다.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주민참여가 적극적이고 활발하니까요. 또한 합의도 잘 되는 편입니다. 지금처럼 마을에 관심 가지고 활동해주신다면 더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을에 대한 불편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민원을 올려주시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시의원님을 만나면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서 분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여느 정치인들처럼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분이 아니셨지만, 봉사 정신으로 마을 일의 경험부터 차곡차곡 쌓아오셨고 묵묵하게 실천해오신 분이 느껴졌다. 개인적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인상도 아주 좋았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진정성있게 의정 활동해주시기를 기대해본다.

안지원 기자



화성시의회 민간위탁 제도개선 연구단체 용역 보고회

[별표 제 14호 (개정 2022. 3. 14)]

구분	입안내역	입안기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등록 및 증명된 자	현재 입안
2	<의제>	
3	「5·18인구유족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인구유족증명서 발급	현재 입안
4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일정 장애)	현재 입안
5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일정 장애)이 아닌 장애인	최근 2기는 현재 입안(유승민 의원) 이후 3기는 2021년도 입안 (제 14호 별표 제 14호 개정) 입안
6	<의제>	
7	국립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립박물관, 국립경기도립박물관, 경기도립박물관, 국립경기도립박물관, 국립경기도립박물관, 국립경기도립박물관, 국립경기도립박물관	현재 입안

홈페이지 : 화성시의회 (hscity.go.kr)
문의 : 031-5189-2522

봉사 체험 이야기

화성시 영천동 LH 2단지 내 도시락 포장, 배달 봉사

7월 15일(금) 동탄 어울림 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여 소외계층의 가정애 도시락을 전달하였다. 오전 10시 소회의실에 15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하여 후원받은 물품들을 분배하고 포장하였다.

도시락 지원을 전달 받으신 분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고맙습니다' 는 인사를 여러 번 건네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며 격려와 칭찬을 해주셨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봉사자가 힘을 합쳐 도시락 전달을 마쳤다. 친구 사이인듯한 고등학생 2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온 사람도 2명이나 있었다.

화성시 병점동 동부출장소 구내식당 무료급식 및 배달 봉사

7월 30일(토) 오전 7시 30분, 화성 병점동 '효나눔노인복지센터' 에서는 노인들과 소외계층의 결식을 우려하여 무료 급식 및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였다.

20여 명의 봉사자들이 이른아침부터 나와서 급식과 도시락 준비를 하였다. 무료 급식을 드시러 온 어르신께는 요거트와 함께 식판에 담아서 테이블에 갖다 드렸다. 또한 식당으로 못 오신 분들과 오실 수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 도시락과 후원 물품을 포장하여 2인 1조로 이동하여 전달하였다.

자원봉사자 중에 아들, 딸과 함께 봉사에 참여한 분이 계셔서 감응을 더했다. 아이들의 이미지는 '봉사의 소중함' 을 가르치고 싶다고 전했다. 바라보는 참여자들도 미소가 절로 나오는 순간이었다.



평화감리교회 구내식당 무료 도시락 배달 봉사

8월 6일(토) 화성시 기산동 평화 감리교회 2층 식당에 도착했다. 서둘러 일회용 장갑과 위생모를 쓰고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늘어난 시기여서 무료 급식은 하지 않고 후원받은 물품과 도시락을 전달하기로 했다. 효나눔센터 원장님은 봉사자들에게 '함께해 줘서 고맙다' 라는 성원의 말을 아끼지 않으셨다. 봉사자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봉사 시간이 80시간이 넘는다고 하여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봉사만 만 18세의 학생이 그만큼 한다는 것은 봉사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다. 그 마음과 정성을 바탕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할 미래가 그려졌다. 필자가 "사회에 꼭 필요한 뿌리와 줄기와 나무와 씨앗이 되어 주세요." 라고 전하자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겠다고 했다. 학생과 한 팀이 되어 도시락 포장과 전달하다 보니 힘든 일도 잊을 만큼 에너지를 도로 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 학생은 대학 면접 시 인성 점수가 있는데 봉사활동이 주요한 항목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의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1365 자원봉사

지금 바로 이 순간 서둘러야 한다. 검색창에 "1365" 라고 검색하면 된다. 자원봉사 포털 1365는 1년 365일의 의미가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봉사신청도 할 수 있다. 봉사활동 체험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고 나눔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기분이나 감정을 보고 느끼면서 좀 더 살기 좋고 따뜻한 이웃의 정이 넘치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해 보자

김영길 기자

노작마을, 복달임 효도 잔치

노작 마을 발전위원회에서는 중복 이틀 후, (7월 28일 낮 12시) 노작 마을 삼계탕 전문 식당에서 노작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복달임 효도 잔치를 하였다. 그동안 노작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회비가 많이 모인 덕분에 큰 부담 없이 효도 잔치를 할 수 있었다.

노작 마을 효도 잔치에는 김종대 회장님을 비롯하여 동탄2동 박동균 동장님도 특별히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다. 박동균 동장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 하며 '요즘 의학의 발달로 사회적 분위기가 100세 시대 이니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전하였다. 이에 어르신들은 웃음을 가득 띠시며 밝은 분위기를 자아내셨다.

얼굴에는 미소가 퍼졌고, 식탁 위에는 맛있게 잘 끓인 삼계탕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마다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로 가득 차서 식당 안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삼계탕을 맛있게 다 드시자 후식으로는 시원한 수박이 나왔다. 수박을 드시는 내내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시는 모습들이 편안해 보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한 분,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행복한 미소와 배부르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잘 먹었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고맙습니다." 는 인사를 살갑게 건넸다. 어르신들의 흡족한 표정만으로도 보람을 느꼈는데, 따뜻한 화답까지 주시니 뿌듯한 마음에 벅찬 숨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마음속으로 진심이 터져 나왔다.

박영미 기자



이거리를 생각하세요~

깨끗한 동탄 2동 만들기, 관내 거리 청소

8월 5일(금) 오전 7시 30분, '깨끗한 동탄2동 만들기' 슬로건과 함께 관내 거리 청소를 하기 위해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만났다.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풍정 단, 각 사회 봉사단체들이 함께했다. 박동균 동장님과 차순임 시의원님을 비롯하여 30명 정도 모였다.

다들 시간에 맞춰서 오셨다. 양손에는 코팅된 빨간 장갑을 끼고 청소 도구를 들고 목에는 손수건을 둘렀다. 두 팀으로 나눠서 거리 청소를 했다. 항상 눈에 많이 보이는 건담배꽂초다. 비닐 종류도 많았고 기타알루미늄, 깨진 유리병 등 종류도 다양했다. 쓰레기봉투에 종류별로 분리하면서 주위 담았다.

차순임 시의원님이 옆에 계셔서 "이렇게 일찍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건넸다. "아닙니다. 당연히 주민으로서 참석해야죠" 라며 거리 청소 봉사 시간 내내 몸을 사리지 않는 모습에서 봉사에 대한 진심이 느껴졌다.

거리 청소를 하다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보도와 아파트 사이의 완충 녹지다.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고 풀들도 크게 자랐다. 예상대로 그곳은 쓰레기장처럼 한두 개가 버려진 게 아니었다. 차근차근 열심히 주워 담았다. 그러던 중 이마와 등에서는 이미 땀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한낮의 기온이 아톰데도 매우 더운 날씨였다.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참여하여 쓰레기를 줍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쓰레기를 아무 데나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1시간 가까이 지나서 거리 청소를 마쳤다. 시원한 생수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 물맛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꿀맛" 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 기분이 정말 좋았고 땀을 흘리고 나니 찜찜함보다는 호뭇함이 더 컸다.

김영길 기자

화성시 무상교통 체험 일기 (feat. 무상교통 정보)

2022.07.26.화

동탄으로 이사 온 지도 어언 삼 개월이 다 됐다. 처음엔 낯선 도시 같았는데, 살수록 정이 든다. 뒤늦게 '화성시 무상교통' 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신청했다.

화성시 관내에서만 혜택을 받는다.
혜택 대상은 만 6세 이상 23세의 아동과 청소년,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신청 후 한 달 후부터 신청한 본인 은행 계좌로 돌려받는다.
(화성시청 홈페이지 참조)



수도권 최초의 정책이라는데, 참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탄소배출권을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의미깊은 취지다.
오늘 국민은행 알림을 체크해 보니, 지난달 사용했던 금액이 입금됐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화성시는 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과연 그렇다!

화성시 무상교통이란?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으로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교통 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 교통 정책이다.

지원대상

화성시 거주 아동 · 청소년 · 청년(만6~23세 이하) 및
어르신(만65세 이상)(주민등록 기준)

지원 교통수단

일반 시내 · 마을 버스(좌석 · 광역 · 시외 · 공항버스 제외)

지원내용

화성시 관내 통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내 · 마을버스요금

※ 승하차 정류소 기준, 타 지자체 통행

(수노권 통합 환승할인 통합) 요금 지원 제외

※ 승하차 시, 버스 단말기에 전용 카드 미접촉(미태그)본은 미지급됨

지원방법

월별 신청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

※ 장애인 별도교통수단 이용 신청자는 市 운영기관과 정산하여

대상자 계좌 지급

지급중지(환수)

다른 사람의 명의도용 등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사문서 위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카드 타인 대여 및 부정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

윤보현 기자

출처 : 화성시청 홈페이지 교통과

풀벌레 소리를 들으며 독서하기 좋은 계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을 권할까?

「페인트」 | 이희영

대상 : 초등 6학년 이상, 부모에 대해서 사유하고 싶은 성인



부모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택할까요?
자격 미달의 친부모보다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아이를
통제하고 교육하는 게 더 나은 것일까요? 주인공은 친부모
대신 국가 시스템에서 키워졌어요.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공간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 반듯하게 잘 자란 소년이지요,
국가 시스템에서 키워진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양부모를 정해야 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면접해서
결정하는 거죠, 부모를 정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면
'국가 시스템 출신'이라는 낙인과 사회의 편견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출신에 대한 차별을 받는 거죠.

그런데도 이 소년은 부모를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합니다.
'국가 시스템 출신'에 대한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주인공은 편견으로부터
해방되고 담당해지는 길을 선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용기
있고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용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통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입니다.

「구멍에 빠진 아이」 | 조르디 시에라 이 파브라

대상 : 초등 3~6학년, 구멍에 빠져 허우적대는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성인



살다 보면 구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있어요, 구멍은
파낸 자리나 뚫린 자리로 가던 길을 방해하는 요소, 헤쳐
나가야 할 어려움, 빠져나와야 할 대상 등을 의미하죠. 쉽게
말해서 아이나 어른, 누구에게나 고민의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요, 그 구멍을 깊고도 찬찬히 바라보면 악당이
파놓은 구멍이가 아니라 스스로가 파놓았음을 알게 되곤
합니다.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므로 구멍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토닥여주고 북돋아
주어야 해요, '구멍에 빠진 아이'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날씨와 더운 날씨를 견디며
구멍에 빠져있던 아이는 마침내 그 구멍이 내 마음의
구멍임을 알아차게 됩니다. 그 구멍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을 쏘이고 있던 구멍은 차츰 느슨해집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주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동화답게 이야기는 말랑말랑해요, '구멍'이라는
상상력으로 재미와 공감을 더 하고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어른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새벽 풀벌레 소리가 정겨운 계절이에요, 이른 아침, 잠시
독서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안지원 기자

화성시 정보 & 소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사업

-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 생리용품(생리대, 생리컵, 생리패드) 구매 지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16일
- 신청처: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031-298-524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비용(바우처)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9~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16일

신청처: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031-298-5242)

지원금: 연 최대 150,000원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9세~24세(1998년~2013년생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연 최대 150,000원 (1월~6월: 월 12,000원, 7월~12월: 월 13,000원)
-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16일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자립준비청년 입주자 모집

- 모집대상: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 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
- 접수기간: 매월 15일까지
- 모집인원: 총 3명 (화성센터 3명, 고양센터: 대기접수)
-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관련문의: 희망디딤돌 경기센터(031-298-5242)

희망디딤돌 경기센터 경기도 청년 주거지원 입주자 모집안내

- ✓ 입차료를 내지 않고 최대 2년간 임대료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1인 생활, 원룸오피스텔 지원
- ✓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신청대상: 경기도 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5년 이내 또는 종료예정인 자립준비청년

접수기간: 매월 15일까지

모집인원: 총 3명 (화성센터 3명, 고양센터: 대기접수)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관련문의: 희망디딤돌 경기센터(031-298-5242)



행복한 사랑나무 나눔 릴레이 소식

동탄 2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행복한 사랑나무'라는 나눔 릴레이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업체 등 꾸준히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에 의해 현재 398번째 후원을 받았습니다. 기부해 주신 빵이나 현금, 요구르트 등은 저소득 가정, 독거 어르신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 연락처 : (031) 5189-5045, 4878
- 동탄2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복지팀 -

제6회

탄요

2022.10.29.토

축제

시간
12:00~
17:00

장소 : (가칭) 동탄중앙도서관부지 (반송동 139)

공연·체험 행사

- 색소폰 팀
- 워드유크퍼니-뮤지컬중창
- JJ다이아트댄스&파워핏 그외 공연행사
- 제13회 주민자치발표회
- 숯부작체험
- 전시

탄요웹툰 공모전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일반인
- 공모기간 : 2022.10. 21(금) 16: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dongtan2dong@naver.com
(형식 제한 없음)

숯부작경진대회

- 모집기간 : 2022.10. 4(화)~10.15(토)
- 재료배포일 : 2022.10.18(화)~10.19(수)
- 모집방법 : 네이버 폼 신청

애나바다 셀러모집

- 참가대상 : 동탄2동 주민
- 모집기간 : 2022.10. 21(금) 16:00 까지
- 행사날짜 : 2022.10. 29(토) 12:00 ~ 17:00
- 제출서류 : 동탄2동 거주 증빙자료

문의 동탄2동 주민자치회 031-5189-4756